

제 1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과 같은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과 같은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에 따라 달리 쓰는 말
2.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3. 학술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
4. 외국에서 최근 들어온 말로 우리말처럼 쓰는 말

2. 다음은 훈민정음의 자음자 제자 원리이다. 설음의 예로 옳은 것은?

해례본의 제자해에 따르면, 자음자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즉 자음자는 자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그 기본 글자 다섯 자를 만들었다.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舌音, 혓소리)은 혀(끝)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唇音, 입술 소리)은 입 모양을 본뜨고, 치음(齒音, 잇소리)은 이 모양을 본뜨고,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뜨는 것이다.

- 1. ㄴ 2. ㄱ 3. ㄷ 4. ㅇ

3. 다음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토론의 일부분이다. ㉠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학생1: 아르바이트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생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야 합니다.
학생2: 아르바이트는 코로나 수면 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반대합니다.

- 1.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사회 경험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4. 청소년은 학교에서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4. 다음 규정이 적용된 예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1. 같다 2. 꽃이 3. 밭일 4. 묻히다

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들: 엄마! 저 충치가 생겼나 봐요. 이가 너무 아파요.
엄마: 그래? 충치 때문에 많이 아프겠네.
() ㉠ ()

<조건>

- 관용 표현이 포함되도록 할 것.
○ 청유형으로 문장을 종결할 것.

- 1.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야.
2. 내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문제가 생겼구나.
3. 더 아프기 전에 뜸 들이지 말고 빨리 치과에 가자.
4. 평소에 이를 잘 닦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

6. 다음은 '양성 평등'에 대한 글쓰기 개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서론: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 사례

II. 본론

1. 양성 불평등의 원인

가. 사회 제도의 구조적 모순

나. 실질적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

2.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대책

가. 사회 제도의 개선 및 보완

나. ㉠

III. 결론: 대책 방안의 적극적 실천 요구

- 1.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가중
2. 교육을 통한 양성 평등 의식 확립
3. 남녀 간 평균 임금의 불평등 문제 심화
4.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

7.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2. 내가 감기에 걸린 이유는 겨울비를 맞았다.
3. 우리 선수단은 내일 제주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4.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한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십 년(十年)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¹⁾(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한 간²⁾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 1) 초려 삼간: 세 칸짜리 초가, 아주 소박한 집.
2) 한 간: 한 칸.

8. 위 작품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었다.
- ②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분류되었다.
- ③ 가락을 붙여 시조창으로 부르기도 했다.
- ④ 작자층이 양반층에서 서민층으로 확대되었다.

9. 위 시를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을 사귀지 말고 혼자 산속에서 살아야겠다.
- ② 강과 산보다는 달과 바람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 ③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야겠다.
- ④ 자연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리야겠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같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10.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과 연의 구별이 없다.
- ②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④ ‘-더니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11.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실감 ② 성취감 ③ 안도감 ④ 우울감

12. ㉠의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류 ② 단절 ③ 발전 ④ 순환

13. 위 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낭송 방법은?

- ① 차분하게 고백하듯 낭송한다.
- ② 걱정적으로 명령하듯 낭송한다.
- ③ 들뜬 목소리로 조급하게 낭송한다.
- ④ 거만한 목소리로 유쾌하게 낭송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 기어 나온다. 얼굴
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뭘지 형겔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부러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
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우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 조졌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 몸을 홑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붓짐을 들어 본다.
가뿐하니 낚 말갯웃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
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벼를 논에다 도로 털어
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라. 하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알갯거리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렸다. 에이 고얀 놈, 할 제 불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 김유정, 「만무방」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 ② 비현실적인 배경과 사건이 나타나 있다.
- ③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④ 사투리의 사용으로 토속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15. ㉠~㉣ 중 ‘응철이’가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무방’의 ㉠ 품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다. 이 작품이 창작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이 ㉡ 농사꾼이었고 땅이 없는 농민들도 많았을 텐데, 응칠 형제와 같이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면 대다수가 만무방이 될 ㉢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 작품이 ㉣ 열리어진 결말이라 더욱 인상적이었다.

- ① ㉠: 문맥에 맞게 ‘의미’로 고쳐 쓴다.
- ② ㉡: 맞춤법에 맞게 ‘농사꾼’으로 고쳐 쓴다.
- ③ ㉢: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수 밖에’로 띄어 쓴다.
- ④ ㉣: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열린’으로 고쳐 쓴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 사양하고,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 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 흔연히 받아 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중략)...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物種)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利)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것 아니오?”

[A]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죽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 고갈될 것이매,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 박지원, 「허생전(許生傳)」 -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씨는 허생에게 돈을 번 방법을 물었다.
- ② 변씨는 허생을 몸소 찾아가 도움을 주었다.
- ③ 허생은 변씨가 돌려주려 한 돈을 거절했다.
- ④ 허생은 재물 소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8. [A]에서 드러난 ‘허생’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점은 백성의 삶과는 무관하다.
- ② 돈의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어렵다.
- ③ 조선은 교동이 열악하고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
- ④ 조선에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19. ㉠~㉣을 활용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양(辭讓): 사양 말고 많이 드세요.
- ② ㉡ 역정(逆情): 그 일로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셨다.
- ③ ㉢ 흔연히(欣然-): 친구의 말장난에 속이 상해서 흔연히 일어났다.
- ④ ㉣ 고갈(枯渴): 올봄은 오랜 가뭄으로 하천의 물이 고갈될 지경이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화 생물학은 자연계에 적자생존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자생존이란 어떤 형태로든 잘 살 수 있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지 꼭 남을 꺾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을 그저 경쟁 일변도로만 여겨 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이에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이었지요. 자연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도 십 몇 년 전까지는 이것만이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보니 살아남은 존재들은 무조건 전면전을 벌이면서 상대를 꺾는 데만 주력한 생물이 아니라 자기 짝이 있는,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략)...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온 결과 생각하는 사람,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나친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현명한 인간이라면 우리의 집인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오진 말았어야죠.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환경을 훼손해 놓고 현명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은 똑똑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 제 꺾에 제가 넘어가는 헛똑똑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현명한 인간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동물, 다른 식물과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한 인간이라는 자만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나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천,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나기」 -

20.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쟁만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생태학자들이 있었다.
- ② 살아남은 생물은 상대방과 무조건적인 전면전만 한 것은 아니었다.
- ③ 인류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환경을 훼손해 놓고 자신을 현명하다고 여긴다.
- ④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다른 동식물들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21. ㉠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거듭된 실패로 다들 포기했지만 계속 도전하여 마침내 전구를 발명해 내었다.
- ② 터널 대신 우회로를 건설해 비용이 증가했지만 멸종 위기 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 ③ 살충제 개발로 해충을 없애 식량 증산을 이루었지만 토양오염으로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 받게 되었다.
- ④ 세탁기가 자동화되면서 익혀야 될 사용법은 늘어났지만 한 번에 빨래에서 행굼, 탈수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22. 윗글을 읽을 때 적절하지 않은 독서 전략은?

- 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 ② 사소한 내용은 왜곡하여 읽기
- ③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 ④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 따져 보기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사이 우리 주변에는 남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소비 행태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흔히 우리는 ‘과소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과소비와 비슷한 말로 ‘과시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시 소비란 자신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려는 본능적 욕구에서 나오는 소비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를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척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모방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동은 ‘모방 본능’ 때문에 나타난다.

모방 본능은 필연적으로 ‘모방 소비’를 부추긴다. 모방 소비란 내게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무작정 따라 하는 식의 소비이다. 이는 마치 ㉡ 남들이 시장에 가니까 나도 장바구니를 들고 덩달아 나서는 격이다. 이러한 모방 소비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점에서 과시 소비 못지않게 큰 경제 악이 된다.

- 정균승, 「일상생활의 경제학」 -

23. 윗글의 주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③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 ④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24. 윗글의 ‘과시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 악이 아니다.
- ② 날로 줄어드는 소비 행태이다.
- ③ 경제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 ④ 남에게 보여 주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소비이다.

25. ㉡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속담은?

- 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